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주일 설교를 매주 Podcast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스마트폰에 설치해 드립니다.
- 교육부 애플 피킹: 9월30일(주) 주일예배 후
  - Youth Group and Sunday School will be going apple picking at Wilkens Farm.  
Nursery School children may attend if accompanied by their parent.  
Please join us after Sunday Service for a day of picking apples eating doughnuts and drinking cider!
  - 장소: Wilkens Farm, 1335 White Hill Rd Yorktown Heights, NY 10598
- 오늘 예배 후 운영위원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남아주십시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9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이영중 집사 (시 124)

이번 주 친교: 김경화 집사, 하영미 집사

다음 주 친교: 이영순 권사, 이영희 권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능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강승연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 이민영 목사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고전 (1 Cor.) 1:17-31** ----- 이민영 목사  
 설교(Sermon)----- “**주 안에서 자랑하라**”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268장 (통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 (Psalm) 1 ----- 이영순 권사  
 찬양(Choir)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고전 (1 Cor.) 1:17-31**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주 안에서 자랑하라**”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149장 (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살전 5:1-11; 살후 2:1-12)**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통치를 완성하신다는 약속은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관해 오해할 때 미혹이 일어납니다. 한 편으로는 그 때가 이미 왔고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재림주임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때가 아직 멀었다거나, 실제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부활의 때가 이미 지났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전에 교회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을 다시 확인하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편만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주를 대적하며 스스로를 높혀 하나님 자리에 오르며 많은 사람을 유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탄이 세상의 권력과 교묘한 거짓 진리, 속이는 능력, 방탕한 문명을 사용해 미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막고 있는 손길을 잠시 풀어 그들을 드러내어 최후로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언제냐가 아니라 오늘의 삶입니다. 주의 강림은 자는 자에게는 도적이 오는 것 같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낮이 온 줄 알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오래 기다린 신랑이 오는 것 같이 반갑습니다. 깨어있으란 얘기는 눈을 부릅뜨고 언제 오실지 지켜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낮이 온 줄 모르고 밤의 일, 속이고 방탕한 일에 빠져있지 말고, 빛 되신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서 살라는 말입니다(롬 3:11-14).

주님은 이미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뤄졌다면, 이미 빛이 임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과 두려움의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은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 로마 제국, 타락한 교황, 특정한 정치 지도자들이 불법의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존재는 늘 있어왔습니다.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의 왕,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운 헬라의 왕,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황제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타락한 교회의 배금주의, 인본주의, 개인 숭배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골 2:15). 그 막은 손을 잠시 놓아 풀어주시는 것은 가라지가 가라지 되게 해서 심판하시려는 뜻입니다. 악이 정체를 드러낼 때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과 욕심이 들고 일어납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가 여전합니다. 그러나 막고 계십니다.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말의 기회만 남아있어도 무한하신 긍휼로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놓으실 때가 언제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힘써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